아시아교육연구 21권 2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20, Vol. 21, No. 2, pp. 143-169.
https://doi.org/10.15753/aje.2020.06.21.2.143

완벽주의 군집별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박효진(朴曉珍)*
주현정(朱炫貞)**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유형에 따라 어떤 자연 발생적인 집단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집단에 따라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315명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의 하위변인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군집분석한 결과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군집 1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모두 높은 '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 군집 2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높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은 낮은 '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 군집 3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모두 낮은 '비완벽주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군집유형에 따라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군집 2(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는 자기효능감과 학습전략의 인지전략(시연, 조직화), 자원관리전략(학습시간관리, 노력 조절), 초인지전략에서 군집 3(비완벽주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의 경우 개인-정서적, 학업적, 사회적 적응에서 군집 1(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완벽주의 유형을 확인하고 완벽주의 성향과 관련된 학생의 성향 파악 및 학업과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다차원적 완벽주의, 군집분석,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대학생활적응

* 제 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강사
** 교신저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혁신센터 조교수

Ⅰ. 서론

오늘날 한국 대학생들은 자신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신이 더 완벽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하정희, 조한익, 2006). 타인보다 더 완벽하고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과제나 일,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과 기대를 갖는 완벽주의 성향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Flett & Hewitt, 2002). 초기 완벽주의 연구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 성격장애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보이는 결과를 많이 도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완벽주의의 다차원적인 측면이 제기되면서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측면 또한 연구되고 있다(Hewitt & Flett, 1991).

다차원적 완벽주의 개념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Hewitt과 Flett(1991)으로, 이들은 완벽함의 기준을 제시하는 대상에 따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사회부과적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을 제시하였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수행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성향을 뜻하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부모와 같은 타인이 자신의 수행에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고 믿는 성향을 의미한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타인의 수행에 자신이 높은 수행 기준을 요구하는 성향을 뜻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높은 내재적 학습 동기(조한익, 오홍석, 2009; Miquelon, Vallerand, Grouzet, & Cardinal, 2009)와 낮은 시험불안(최원혜, 문은식, 2004)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낮은 자아 존중감(Flett, Hewitt, Blankenstein, Solnik & Van Brusshot, 1996)이나 높은 시험불안(박지연, 양난미, 2014)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연관성을 보인다고 한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윤희, 2012; Flett et al., 1996).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완벽주의는 학업과 관련한 심리 변인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에 따라 완벽주의는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대학생활적응 등과 같은 변인과의 연관성이 많이 연구되었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이나 과제에서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기준이나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특징으로 인해 완벽주의 성향과의 연계성을 보이는 것이다.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예: 이현주, 2012)에 의하면 자기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편이고, 타인이 자기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고 인식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학습전략은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구체적인 학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고 조직하는 전략으로(김연희, 이종경, 이하늘, 이선아, 2011), 어떻게 학습전략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습 결과가 달

라질 수 있다(양명희, 정윤선, 2010; Zimmerman, 1990). 학습전략은 인지전략, 초인지전략, 자원관리전략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전략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 비판적 사고 등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칭하며, 초인지전략은 자신의 인지를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절하는 전략을 의미한다(Pintrich, Smith, Garcia, & McKeachie, 1993). 자원관리전략은 학습시간, 과제수행에 필요한 노력, 주변 사람의 도움 등 학습자의 물리적 및 사회적 자원을 조절하는 전략을 의미한다(Trawick & Corno, 1995). 자신이 스스로 완벽함의 기준을 설정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양명희, 정윤선, 2010).

대학생은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서 벗어나 이전과는 다른 많은 책임과 지위, 독립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게 되는데, 이를 대학생활적응이라고 한다(추민지, 유순화, 임혜경, 2015; 하정희, 조한익, 2006).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생활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실패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울, 불안,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하정희, 조한익, 2006).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적응적 측면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되고, 비적응적 측면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대학생활적응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예: Verner-Filon & Gaudreau, 2009).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을 토대로 완벽주의가 학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며, 특히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개별 하위 차원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 차원의 조합에 따라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대학생활적응에서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즉,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예측할 수는 있으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모두 높은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차원적 하위 차원의 조합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군집분석을 활용하는데, 군집분석은 관측 개체들을 유사한 속성을 지닌 몇 개의 집단으로 그룹화함으로써, 각 집단의 특성이나 패턴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완벽주의 유형과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대학생활적응 사이의 관련성을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어떤 군집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학생의 학업 생활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완벽주의 군집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완벽주의(자기지향적, 사회부과적)에 따른 군집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연구문제 2. 완벽주의 군집별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완벽주의 군집별 학습 전략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완벽주의 군집별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수행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성격 특질을 의미한다(Flett & Hewitt, 2002; Frost & Marten, 1990; Stoeber & Otto, 2006). 초기의 완벽주의 연구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패배감,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적응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측면뿐만 아니라 완벽주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높은 성취도, 만족감 등과 같은 적응적 측면을 연구하고 있다(Stoeber & Otto, 2006).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연구자 중 하나인 Hewitt과 Flett은 완벽주의의 기준을 부과하는 대상에 따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그리고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자기 스스로 수행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수행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특질이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타인이 자신의 수행에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고 지각하는 성향이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타인에게 높은 수행 기준을 요구하며 타인의 수행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성격 특질을 의미한다(Hewitt & Flett, 1991).

완벽주의 연구를 크게 차원적 접근(dimensional approach)과 집단적 접근(group-based approach)의 두 가지 접근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Stober & Otto, 2006). 차원적 접근은 완벽주의의 세 하위 차원과 관련 있는 변인들을 탐구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학습자는 높은 학습 동기(Closson & Boutilier, 2017)를 보이며, 특히 학습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학습을 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가 높다고 한다(조한익, 오홍석, 2009; Miquelon et al., 2009). 또한 우울이나 낮은 자존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는 관련이 없으며(박지영, 송현주, 2018; 송윤희, 2012; Flett et al., 1996), 학업성취도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견영기, 조성명, 황현국, 이강욱, 2010; Accordino, Accordino, & Slaney, 2000; Bieling, Israeli & Antony, 2004; Brown et al., 1999).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학습자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Flett, Hewitt, & De Rosa, 1996), 낮은 자아 존중감(Flett et al., 1996), 높은 우울이나 불안(박지연, 양난미, 2014; 이현주, 손원숙, 2013; 정아현, 강민주, 2014; 최원혜, 문은식, 2004; Mills & Blankstein, 2000; Stober et al., 2009) 등과 관련이 있으며,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학습자는 외로움,

수줍음, 낮은 자존감과 같은 사회적 감정 요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송윤희, 2012; Flett et al., 1996).

완벽주의의 집단적 접근 연구는 완벽주의의 하위 차원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는 것으로, 국내외의 대다수 연구는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나 Frost와 Marten(1990)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HMPS를 이용한 연구의 예로, 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근영, 이동귀(2009)는 적응적 완벽추구 집단, 기대부합 집단, 그리고 비완벽주의 집단의 세 하위집단을 도출하였고, 심은정과 신선임(2018)은 강박적 완벽주의 집단, 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 비완벽성향 집단, 그리고 일반수준 완벽성향 집단의 네 군집을 도출하였다. FMPS를 이용한 연구의 예로, Rice와 Mirzadeh(2000)와 박현주와 정대용(2010)은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 비완벽주의 집단의 세 개 군집을 도출하였고, 김현희와 김창대(2011)는 평가염려 완벽주의, 개인기준 완벽주의, 비완벽주의의 세 개 집단을 도출하였다.

완벽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대부분 학습상황에서 긍정적인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부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의 영향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송윤희, 2014). 특히, 한국과 같은 아시아 학생들이 그룹의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주의(collectivism) 특징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Hofstede, Hofstede & Minkov, 2010), 타인에게 높은 수준의 기준 달성을 기대하는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나 부모, 사회의 기준 달성에 집중하는 자기지향적 또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경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Bong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인지향 완벽주의를 제외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만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군집분석을 활용한 집단적 접근 연구는 FMPS나 HMPS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아시아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대인관계 차원에서 완벽주의를 파악하고 있는 HMPS가 더 큰 의의를 시사할 수 있다(심은정, 신선임,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ewitt과 Flett(1991)의 HMPS 중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차원을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Bandura, 1986), 현재의 수행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행 수준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아영, 1997; 이현주, 2012; Eccles & Wigfield, 2002; Stajkovic & Luthans, 1998).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학업 상황에서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

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Bandura & Schunk, 1981). 또한,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Pintrich & De Groot, 1990).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습자는 수행에 대한 기준이 높아 결과를 성공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져 자기효능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rns, 1980). 최근에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개념이 등장함에 따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차원적 접근에서 이루어졌으며,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과의 정적 관계,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과의 부적 관계를 비교적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LoCicero와 Ashby(200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측면인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송윤희(2014)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자신의 기준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하며 성공적인 학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하였다. 이민규와 김근홍(1998), 염시창과 박현주(2005) 역시, 자기 스스로 완벽함의 기준을 세우는 학습자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타인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완벽함의 정도에 민감할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하는 등,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에서는 비교적 일관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Hart, Gilner, Handal, Gfeller(1998)의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자기효능감과 연합되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자기효능감과 연합된다는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을 예언하는 데 유의한 변수로 알려져 왔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상이한 연구결과가 혼재해 있으므로,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또한, 그 연구가 차원적 접근에 치중되어, 의 연구는 많았지만 완벽주의의 하위변인에 의한 군집에서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하위집단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완벽주의와 학습전략

학습전략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상황에서 적용하는 기술, 사고나 행동을 의미하며(김연희 외, 2011; 조일현, 김연희, 2014), 인지전략, 자원관리전략, 초인지전략으로 구성된다(Pintrich et al., 1993). 인지전략은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처리 과정으로,

정보의 획득, 조직, 저장,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김연희 외, 2011), 시연, 정교화, 조직화, 비판적 사고 전략을 포함한다. 시연 전략은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정교화 전략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조직화 전략은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내용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전략을 뜻하며, 비판적 사고 전략은 주어진 정보와 조건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높은 학업성취자와 낮은 학업성취자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습자가 인지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Zimmerman & Martinez-Pons, 1986).

자원관리전략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이용하는 전략으로, 학습시간관리, 노력조절, 동료학습, 도움구하기 전략을 포함한다(전명남, 2003; Pintrich et al., 1993). 학습시간관리 전략은 학습 시간을 적절히 관리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노력 조절 전략은 과제의 호감 여부에 상관없이 노력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동료학습전략은 과제 완성을 위해 팀원과 함께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도움구하기 전략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주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은 학습시간관리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전명남, 2003; Britton & Tessor, 1991), 어려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 교사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였다(Ames & Lau, 1982; Karabenick & Knapp, 1991; Zimmerman & Martinez-Pons, 1986).

초인지전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을 통제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역할로, 자신의 인지를 계획 및 검토하고, 수정하는 전략을 의미한다(Pintrich et al., 1993). 초인지전략은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이지혜, 2010), 학습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신종호, 최효식, 2007). 선행연구에 의하면,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은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초인지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명남, 2003; Pintrich & De Groot, 1990).

완벽주의와 학습전략 간의 관계를 차원적 접근으로 탐색한 연구들은 대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학습전략과 정적 관계에 있으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습전략은 부적 관계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Mills와 Blankstein(2000)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인지전략(시연, 정교화, 조직화, 비판적 사고), 초인지전략, 자원관리전략(학습시간관리, 노력조절)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원관리전략(학습시간관리, 노력조절)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국내 연구 역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뛰어난 학습전략을 보이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은 그 반대 관계에 있음을 보인 연구들이 많았다. 정윤선과 양명희(2016)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인지전략, 자원관리전략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원관리전략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정숙희와 이은수(2015) 그리고 조한익과 오홍석(2009)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인지전략, 초인지전략, 자원관리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완벽주의와 학습전략 간의 관계를 집단적 접근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Sironic과 Reeve(2012)는 Slaney, Rice, Mobley, Trippi, Ahby(2001)의 완벽성향 척도 개정판(Almost Perfectionism Scale-Revised; APS-R)을 이용하여 적응적 완벽주의(높은 기준, 낮은 불일치), 높은 기준 부적응적 완벽주의(높은 기준, 높은 불일치), 비완벽주의(낮은 기준, 낮은 불일치), 그리고 낮은 기준 부적응적 완벽주의(낮은 기준, 높은 불일치)로 네 개의 하위군집을 도출하였다. 완벽주의 집단에 따른 인지전략과 초인지전략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높은 기준을 가진 두 집단(적응적 완벽주의 집단, 높은 기준 비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의 인지전략과 초인지전략 점수가 낮은 기준을 가진 집단(비완벽주의 집단, 낮은 기준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PS-R에서의 '높은 기준' 차원은 HMPS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에 있으므로(Slaney et al., 2001),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인지전략과 초인지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완벽주의는 학습전략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변인으로 많이 논의되었지만, 완벽주의의 하위변인에 의한 군집에서 학습전략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군집연구는 각 집단의 특성이나 패턴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점에서 완벽주의와 학습전략 간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완벽주의와 대학생활적응

대학생은 중고등학교 생활을 벗어나 사회인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었던 중고등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대학 환경으로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업을 대학생활적응이라고 한다(김종운, 김미정, 2015). 구체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정서적 측면에서 대학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 요구를 만족하며, 대학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원활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대학 생활에 만족하고 적응하는 등, 개인·정서 적응, 학업 적응, 사회 적응, 그리고 대학 환경 적응 측면에서의 적응을 의미한다(박희석, 2010).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학생은 대학 생활에 불만족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휴학을 한다거나 자퇴를 하는 등 중도 탈락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잘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김종운, 김미정, 2015; Credé & Niehorster, 2012).

완벽주의는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설득력 있는 변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완벽주의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은 대개 차원적 접근에서 이루어졌는데, 다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관계에 있으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대학생활적응과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erner-Filion과 Gaudreau(2009)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학업성취도와 만족도가 높지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학업성취도와 만족도는 낮다고 보고하였다. Mann(2004)은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학교 애착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Rice, Vergara 그리고 Aldea(2006)은 APS-R 척도를 이용하여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높은 기준'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사회적, 개인-정서적 적응이 뛰어난 것을 발견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PS-R에서의 '높은 기준' 차원은 HMPS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에 있으므로(Slaney et al., 2001),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정적 관계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한 김종운과 김미정(2015)과 박슬기와 신선임(2018)의 연구 역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학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하정희와 조한익(2006)도 개인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개인기준 완벽주의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은 정적 관계, 타인의 평가를 염려하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대학생활적응은 부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아라와 이은경(2018) 그리고 구본용과 유제민(2007)의 연구 역시 부모나 타인의 기대를 염려하는 완벽주의 성향은 대학생활적응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완벽주의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집단적 접근으로 검증한 연구 역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의 긍정적 역할,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부정적 역할을 보고해왔지만, 그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Rice와 Mirzadeh(2000)은 FMPS를 토대로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그리고 비완벽주의의 세 하위군집을 도출하였고,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이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은 자기 수행에 대한 기준이 높고, 질서와 조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모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지각하지는 않는 특징을 보인다. 즉,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 정도는 크지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완벽주의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완벽주의는 대학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알려져 왔으며,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대체로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대학생활적응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Mann(2004)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과 학교 적응은 상관이 없다고 하였고, 한종숙(2015)의 연구에서는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는 등 선행연구의 결과가 상이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완벽주의의 하위군집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차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완벽주의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A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수강 중인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약 15분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15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 그리고 전공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 및 전공 계열(N=315)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18명(37.5%)	전공 계열	인문	48명(15.2%)
	여성	197명(62.5%)		사회	103명(32.7%)
	계	315명(100%)		자연	29명(9.2%)
학년	1학년	122명(38.7%)		공학	100명(31.7%)
	2학년	78명(24.8%)		의학보건	6명(1.9%)
	3학년	52명(16.5%)		예체능	28명(8.9%)
	4학년	63명(20.0%)		기타	1명(0.3%)
	계	315명(100%)		계	315명(100%)

2. 연구도구

1) 완벽주의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하고 한기연(1993)이 번역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지향적, 타인지향적,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세 가지 하위차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30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차원의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자기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는 성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의 목표는 모든 일에서 완벽해지는 것이다'를 포함한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는 성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내가 완벽해지기를 기대한다'와 같은 15개 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의 신뢰도(Cronbach' α)는 .87,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69, 그리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5으로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연구도구인 Pintrich 외(1993)가 개발한 학습동기·전략 검사지(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중 자기효능감의 8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수업 전반에 대하여 잘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신뢰도(Cronbach' α)는 .87로 나타났다.

3) 학습전략

학습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연구도구인 Pintrich 외(1993)가 개발한 학습동기·전략 검사지(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중 학습전략의 50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습전략 문항은 인지전략 19문항, 자원관리전략 19문항, 초인지전략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전략은 시연(예: '학습 중 나는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자료에 대해 말하는 연습을 한다'), 정교화(예: '학습한 내용을 다른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시켜 본다'), 조직화(예: '자료를 읽을 때 사고의 조직화를 위해 자료의 개요를 잡아본다'), 비판적 사고(예: '수업 중 듣거나 읽었던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종종 질문해 본다')의 네 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관리전략은 학습시간관리(예: '나는 일정한 장소에서 공부한다'), 노력 조절(예: '학습 자료가 어렵거나 지루하더라도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동료 학습(예: '과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려고 노력한다'), 도움 구하기(예: '필요하다면 학습에 도움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찾아본다')로 구성되어 있다. 초인지전략은 '학습 중 잘 이해되지 않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 차근차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문항으로 제시된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각 요인별로 총점이 높을수록 학습전략의 활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인지전략의 신뢰도(Cronbach' α)는 .85, 자원관리전략은 .71, 초인지전략은 .72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희석(2010)이 개발한 한국판 대학생활 적응척도(Revise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대학생활적응을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대학 환경적 적응, 그리고 사회적 적응의 4가지 차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차원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정서적 적응은 '요즈음 학교 상담소나 심리 상담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많다'와 같은 10개 문항을 통해 대학 생활 중 느끼는 심리 또는 신체적 문제 정도를 측정하며, 학업적 적응은 '요즈음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별로 없다'와 같은 6개 문항을 통해 대학 생활 중 요구되는 학업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대학 환경적 적응은 '요즈음 다른 대학(또는 학과/전공)으로 변경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와 같은 6개 문항을 통해 대학 생활 중 느끼는 주관적 가치를 측정하며, 사회적 적응은 '우리 대학에서 학과 동료들과 어울려서 함께 지내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와 같은 4개 문항을 통해 주변 인물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정서적 적응의 신뢰도(Cronbach' α)는 .86, 학업적 적응은 .86, 대학 환경적 적응은 .72, 사회적 적응은 .67로 나타났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9였다.

3. 자료 분석

완벽주의에 따른 하위군집을 구분하기 위하여 Hewitt과 Flett(1999)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토대로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Wards의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고,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최종 군집을 확정하였다. 이후,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하위군집 간에 자기효능감, 학습 전략,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초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학습 전략,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자기효능감(r = .28, p 〈 .001)과 학습전략(r = .40,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대학생활적응(r = −.13,

p 〈 .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학습전략의 모든 하위 변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인지전략 r = .34, p 〈 .001; 자원관리전략 r = .34, p 〈 .001; 초인지전략 r = .366, p 〈 .001),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변인 중 학업 적응(r = −.25,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인지, 자원관리, 초인지전략이 뛰어나며, 대학생활 중 학업적 요구에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기효능감이나 학습전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생활적응(r = .24,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변인 중 개인-정서적 적응(r = .20, p 〈 .001), 환경적 적응(r = .180, p 〈 .01), 사회적 적응(r = 28,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대학생활 중 개인-정서적 적응, 환경적 적응, 사회적 적응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분석(N=315)

	1-1	1-2	2	3	3-1	3-2	3-3	4	4-1	4-2	4-3	4-4
1-1	-											
1-2	.40***	-										
2	.28***	-.09	-									
3	.40***	.00	.52***	-								
3-1	.34***	.03	.48***	.90***	-							
3-2	.34***	-.02	.37***	.81***	.53***	-						
3-3	.37***	-.01	.49***	.87***	.75***	.57***	-					
4	-.13*	.24***	-.27***	-.26***	-.15**	-.30***	-.25***	-				
4-1	-.00	.20***	-.19**	-.13*	-.06	-.13*	-.16**	.79***	-			
4-2	-.25***	.10	-.28***	-.35***	-.26***	-.33***	-.31***	.75***	.35***	-		
4-3	-.10	-.18**	-.13*	-.15**	-.03	-.25***	-.12*	.75***	.35***	.51***	-	
4-4	-.08	.28***	-.24***	-.20***	-.13*	-.22***	-.16**	.65***	.42***	.40***	.38***	-
M	3.25	2.82	3.54	3.36	3.49	3.30	3.24	2.68	2.90	2.92	2.41	2.15
SD	.62	.40	.59	.47	.48	.40	.47	.64	.79	.91	.94	.78

1-1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1-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2 자기효능감
3 학습전략, 3-1 인지전략, 3-2 자원관리전략, 3-3 초인지전략
4 대학생활적응, 4-1 개인-정서적 적응, 4-2 학업적 적응, 4-3 대학환경적 적응, 4-4 사회적 적응
*p 〈 .05, **p 〈 .01, ***p 〈 .001

2. 완벽주의 군집분석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토대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군집을 파악하기 위하

여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여 Wards의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덴드로그램을 이용하여 3개의 군집 수를 결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군집의 수를 3개로 고정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군집 1은 65명(남자 26명, 여자 39명), 군집 2는 140명(남자 55명, 여자 85명), 그리고 군집 3은 110명(남자 37명, 여자 73명)이 배정되었다. 각 집단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각 집단 간에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x^2(2, N = 315) = 1.07, p > .05$].

구체적으로 각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 1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군집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완벽함의 기준을 세우지만, 타인이 자신에게 제시하는 완벽함의 기준 역시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의 기준과 타인이 제시하는 기준 모두를 충족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군집 1을 '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높지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군집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완벽함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이지만,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함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지각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충족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군집 2를 '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군집 3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도 완벽함의 기준을 세우지 않고, 타인이 자신에게 제시하는 완벽함의 기준도 지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군집 3을 '비(非)완벽주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최종 군집별 중심점

군집요인	군집1(n=65)	군집2(n=140)	군집3(n=110)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67	.50	−1.0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38	−.11	−.67
군집 특성	자기지향적,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모두 높음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높지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은 낮음	자기지향적,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모두 낮음
명칭	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	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	비(非)완벽주의 집단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M = 0, SD = 1

3. 완벽주의 하위집단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개 집단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과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그 결과, 완벽주의 하위집단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 312) = 6.13$, $p < .01$], 군집2(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가 군집3(비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완벽주의 하위집단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군집1 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 (n=65)		군집2 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 (n=140)		군집3 비완벽주의 집단 (n=110)		F	사후 분석
	M	SD	M	SD	M	SD		
자기효능감	3.48	.62	3.67	.54	3.42	.61	6.14**	2 > 3

**$p < .01$

4. 완벽주의 하위집단에 따른 학습전략의 차이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개 집단에 따라 학습전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Box의 동질성 검증 결과, 집단의 공분산 행렬의 가정을 충족하였으므로[$F(20, 135766.091) = .98$, $p > .05$] Wilks' Λ 값을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군집에 따라 준거변인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 .89$, $F(18, 608) = 1.95$, $p < .05$, 부분 $\eta^2 = .055$]. 각 하위 차원에서의 차이점은 〈표 5〉와 같다.

학습전략의 세 가지 하위차원 중 인지전략의 시연[$F(2, 312) = 3.27$, $p < .05$]과 조직화[$F(2, 312) = 5.21$, $p < .01$] 전략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Scheffe 사후분석 결과 군집2(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가 군집3(비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관리전략의 학습시간관리 전략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2, 312) = 3.203$, $p < .05$], 사후검증 결과 군집2(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가 군집3(비완벽주의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력 조절 전략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2, 312) = 10.80$, $p < .001$], 사후검증 결과 군집2(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가 군집1(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과 군집3(비완벽주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인지전략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고[$F(2, 312) = 7.42$, $p < .01$], 군집2(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가 군집3(비완벽주의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완벽주의 하위집단에 따른 학습전략의 차이

	군집1 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 (n=65)		군집2 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 (n=140)		군집3 비완벽주의 집단 (n=110)		F	사후 분석
	M	SD	M	SD	M	SD		
인지전략 -시연	3.73	.71	3.86	.60	3.65	.63	3.27*	2 〉 3
인지전략 -정교화	3.66	.61	3.72	.49	3.58	.54	2.00	
인지전략 -조직화	3.52	.79	3.63	.63	3.36	.64	5.21**	2 〉 3
인지전략 -비판적 사고	3.05	.72	3.13	.61	2.99	.65	1.45	
자원관리 -학습시간관리	3.56	.48	3.64	.41	3.50	.44	3.20*	2 〉 3
자원관리 -노력 조절	3.18	.58	3.42	.53	3.12	.51	10.80***	2 〉 1, 3
자원관리 -동료 학습	2.75	.84	2.96	.82	2.73	.84	2.69	
자원관리 -도움 구하기	3.17	.76	3.17	.78	3.13	.83	.10	
초인지 전략	3.21	.58	3.34	.40	3.12	.45	7.42**	2 〉 3

*p 〈 .05, **p 〈 .01, ***p 〈 .001

5. 완벽주의 하위집단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개 집단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Box의 동질성 검증 결과, 집단의 공분산 행렬의 가정을 충족하였으므로[F(20, 170513.467) = .99, p 〉 .05] Wilks' Λ 값을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군집에 따라 준거변인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Λ = .91, F(8, 618) = 3.87, p 〈 .001, 부분 η^2 = .05]. 각 하위 차원에서의 차이점은 〈표 6〉과 같다.

대학생활적응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개인정서적 적응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F(2, 312) = 6.38, p 〈 .01], Scheffe 사후분석 결과 군집1(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이 군집2(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와 군집3(비완벽주의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적응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2, 312) = 7.34, p 〈 .01], 사후검증 결과 군집1(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과 군집3(비완벽주의 집단)이 군집2(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 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 역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F(2, 312) = 6.81, p 〈 .01], 사후검증 결과 군집1(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이 군집2(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와 군집3(비완벽주의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완벽주의 하위집단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군집1 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 (n=65)		군집2 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 (n=140)		군집3 비완벽주의 집단 (n=110)		F	사후 분석
	M	SD	M	SD	M	SD		
개인정서적 적응	3.20	.84	2.79	.74	2.87	.79	6.38**	1 〉 2, 3
학업적 적응	3.04	.99	2.70	.89	3.11	.83	7.34**	1, 3 〉 2
환경적 적응	2.59	.88	2.28	.91	2.47	1.00	2.82	
사회적 적응	2.45	.81	2.03	.77	2.13	.73	6.81**	1 〉 2, 3

**p 〈 .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을 연구하기 위해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두 하위 요인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군집변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완벽주의 군집별로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 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 그리고 비완벽주의 집단이 도출되었다. 군집 1(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은 자기지향적 및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집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높은 기대를 지각하고 그들의 평가에도 민감한 유형이다. 군집 2는 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으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은 평균보다 낮은 특징을 보인다. 즉, 자기 스스로 높은 기준을 부과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오는 완벽함의 요구에 반응하는 정도가 낮은 유형이다. 기존 연구 중, ‘자기충족 완벽주의’(심은정, 신선임, 2018), ‘자기 만족형 완벽주의’(이아람, 이정윤, 2015), ‘개인기준 완벽주의’(김현희, 김창대, 2011)으로 분류한 집단과 유사하다. 군집 3은 비완벽주의 집단으로 자기지향적,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모두에서 평균 이하 점수를 보인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의 기준을 평균 이하로 부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는 기대에 대한 압력을 느끼지 않는 유형으로, 완벽에 대한 추구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다. 기존 연구의 비완벽주의 집단과 유사한 집단이다(정상목, 이동귀, 2013; 심은정, 신선임, 2018; Rice & Mirzadeh, 2000; Sironic & Reeve, 2012).

완벽주의 군집별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군집2(자기충족 완벽주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높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은 낮음)의 자기효능감이 군집3(비완벽주의; 자기지향적 및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모두 낮음)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은 자신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주어진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경향으로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외부의 수행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효능감은 낮게 하는데, 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높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낮으므로 자기효능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Dunkley et al., 2003; Hadjistavropoulos et al., 2006; Mills & Blankstein, 2000; Stoeber et al., 2008). 그리고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적응적인 성향을,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적응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일부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이현주, 2012; 양명희, 정윤선, 2010).

완벽주의 군집별 학습전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군집2(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가 전반적으로 학습전략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학습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예: 정윤선, 양명희, 2016)를 지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은 인지전략 중 시연과 조직화 전략, 자원관리전략 중 학습시간관리 및 노력 조절 전략, 그리고 초인지전략에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낮은 학생은 학습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설정해 놓은 높은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학습내용을 반복하고 학습내용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연결하면서 조직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학습 시간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개인적 목표 추구를 위해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점검하여 조절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시연과 조직화 전략을 잘 사용하고(Sironic & Reeve, 2012; Mill & Blankstein, 2000), 학습시간관리 및 노력 조절 전략과 정적 관계를 맺으며(Mill & Blankstein, 2000), 초인지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Mill & Blankstein, 2000; Sironic & Reeve, 2012)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군집3(비완벽주의 집단)이 전반적으로 학습전략을 유의미하게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완벽주의 집단은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낮은 집단으로 학습에 대한 열의와 적극성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심은정, 신선임, 2018; 정숙희, 이은수, 2015). 이러한 결과는 비완벽주의 집단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완벽주의 집단보다 학습전략 점수가 낮다고 보고한 Sironic과 Reeve(20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완벽주의 군집별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군집1(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대학생활적응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이 대학생활적응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높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 때문일 수 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타인이 제시한 기준에 민감하기

때문에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의 수준이 높으며(Flett et al., 1996; Flett, Hewitt, Garshowitz, & Martin, 1997),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 정도와 주변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괴리가 크면 사회불안이 증가한다고 한다(송은영, 하은혜, 2008; 이정윤, 조영아, 2001). 이는 불안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한동협, 김희순, 장성화, 2018; Baker & Siryk, 1984). 특히 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적응(주변 인물들과의 대인관계 적응 정도를 측정)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안 지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고립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한동협 외의 연구(2018)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할수록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기존 연구(Flett et al., 1996; Mushquash & Sherry, 2012)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완벽함을 이중으로 요구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결과일 수도 있다. 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은 스스로 자신의 수행에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완벽함의 기준이 타인으로부터 기인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이중으로 완벽함을 요구받는 상황 때문에 더 많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심은정, 신선임, 2018), 심리적 압박감을 경험할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차현수, 2019). 특히 대학생들의 상호관계성, 삶의 방향, 자기가치 등으로 개인의 인성 형성에 있어 핵심이 되는 자기 존재의 본질, 위치, 역할 등 자기탐색과정을 통한 적응을 측정하는 개인정서적 적응 측면에서 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완벽주의 군집별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에서 흥미로운 점은 군집2(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가 다른 완벽주의 군집에 비해 대학생활적응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기효능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은 군집3(비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한다(강경아, 조혜영, 2018; 차현수, 2019). 특히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다 학업소진 정도가 낮기 때문에, 학업적 적응 측면에 있어서 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손윤실, 김정섭, 2016).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의 기능적 역할,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역기능적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완벽주의 군집별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습 현장에서 긍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학습전략 측면에서는 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높지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은 낮음)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생활적응 측면에서는 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자기지향적 및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모두 높음)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의 기능적 역할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역기능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높지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과 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의 역기능적 역할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완벽주의 군집별 차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임상장면에서 완벽주의 성향과 관련한 내담자의 성향 파악 및 학업과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습자들은 대체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보였고, 자기지향적 및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모두 낮은 학습자들은 대학생활적응에는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이 낮고 학습전략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습자들에게 타인이 제시하는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덜 지각하게 하거나 혹은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정상목, 이동귀, 2013).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이 낮은 학습자들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학습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 워크숍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군집별 차이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충족 완벽주의 집단, 자기·타인충족 완벽주의 집단, 그리고 비완벽주의 집단의 존재를 확인하였는데, 청소년이나 성인, 혹은 다른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집단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완벽주의 집단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의 일부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지역이나 대학마다 성취 압력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 외에도 관찰이나 면담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완벽주의 군집별 차이를 타당화할 것을 제안한다. 완벽주의 관련 연구는 보편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며(심은정, 신선임, 2018), 본 연구 역시 자기보고식 설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자기보고식 설문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대학생활적응 문항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어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학습자의 성향이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여 완벽주의 군집별로 실제 자기효능감 정도, 학습전략의 활용 정도, 대학생활적응 양호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경아, 조혜영(2018).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3), 210-218.

견영기, 조성명, 황현국, 이강욱(2010). 일개 의과대학생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2**(3), 205-214.

구본용, 유제민(2007). 중·고등학생의 다차원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15**(1), 67-76.

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근영, 이동귀(2009).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에 따른 하위집단과 학업지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39-56.

김아영(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 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김연희, 이종경, 이하늘, 이선아(2011). 대학생의 학습전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19**(3), 177-196.

김종운, 김미정(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향유신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541-562.

박슬기, 신선임(2018). 대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6), 69-84.

박지연, 양나미(2014).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26**(2), 363-338.

박지영, 송현주(2018). 대학생의 다차원적인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4**(1), 301-318.

박현주, 정대용(2010). 완벽주의 하위집단의 특징: 지연행동, 문제해결 평가, 대인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3), 975-991.

박희석(2010). 대학생활 적응척도의 요인구조 분석. **관광경영연구, 14**(2), 45-66.

손윤실, 김정섭(2016). 고등학생의 학업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30**(4), 671-690.

송윤희(2014). 대학 이러닝 학습자의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몰입, 학업성취도 및 만족도와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10**(2), 105-123.

송은영, 하은혜(2008). 청소년의 외상경험, 완벽주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8**(1), 41-56.

신아라, 이은경 (2018).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6**(2), 117-135.

신종호, 최효식(2007). 메타인지의 영역 일반성과 영역 특수성 비교. **교육심리연구, 21**(1) 89-104.

심은정, 신선임(2018). 대학생의 완벽주의 유형에 따른 부정정서와 자기패배적 행동의 차이. **상담학연구, 19**(1), 289-308.

양명희, 정윤선(2010). 완벽주의와 낙관주의가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8**(3), 45-72.

염시창, 박현주(2005). 일반계 여고생의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19-35.

이민규, 김근홍(1998).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우울과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1), 211-222.

이정윤, 조영아(2001). 사회공포증과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93-104.

이지혜 (2010).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메타인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습몰입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연구, 48**(2). 67-92.

이현주(2012). 완벽주의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자아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동기의 중재효과. **진로교육연구, 25**(4), 199-220.

이현주, 손원숙(2013). 고등학생의 자기지향과 타인지향·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조절학습 및 시험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0**(1), 219-239.

전명남(2003). 높은 학업성취 대학생의 학습전략과 수행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17**(4), 1-28.

정숙희, 이은수(2015). 대학생의 적응적 완벽주의, 학업탄력성 및 자기조절학습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8), 83-103.

정아현, 강민주(2014). 완벽주의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35**(1), 61-76.

정윤선, 양명희(2016). 완벽주의와 낙관주의 성향에 따른 학습자 유형 탐색. **교육과학연구, 47**(2), 179-200.

조일현, 김연희 (2014). 대학생의 학습동기,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과학연구, 45**(2), 77-98.

조한익, 오홍석 (2009). 조절초점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를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16**(9), 205-221.

차현수(2019).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8), 381-391.

최원혜, 문은식(2004).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18**(1), 23-35.

추민지, 유순화, 임혜경(2015).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10), 187-211.

하정희, 조한익(2006). 완벽주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7**(2), 595-611.

한기연(1993). **다차원적 완벽성-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한동협, 김희순, 장성화 (2018). 대학생의 우울, 특성불안, 사회적 지지, 성인애착이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73-88.

한종숙(201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7), 4459-4466

Accordino, D. B., Accordino, M. P., & Slaney, R. B. (2000). An investigation of perfectionism, mental health, achievement,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7*(6), 535-545.

Ames, R., & Lau, S. (1982).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help seeking in academic setting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4), 414-423.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586-598.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Bieling, P. J., Israeli, A. L., & Antony, M. M. (2004). Is perfectionism good, bad, or both? Examining models of the perfectionism constru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6), 1373-1385.

Bong, M., Hwang, A., Noh, A., & Kim, S. (2014). Perfectionism and Motivation of Adolescents in Academic Contex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6*(3), 711-729.

Britton, B. K., & Tessor, A. (1991). Effects of time management practices o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59*(2), 147-162.

Brown, E. J., Heimberg, R. G., Frost, R. O., Makris, G. S., Juster, H. R., & Leung, A. W. (1999).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to affect, expectations, attributions and performance in the classroo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1), 98-120.

Closson, L. M., & Boutilier, R. R. (2017). Perfectionism, academic engagement, and

procrastination among undergraduates: The moderating role of honors student statu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57*, 157-162.

Credé, M., & Niehorster, S. (2012). Adjustment to college as measured by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A quantitative review of its structure and relationships with correlates and consequenc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4*(1), 133-165.

Dunkley, D. M., Zuroff, D. C., & Blankstein, K. R. (2003). Self-critical perfectionism and daily affect: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influences on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234-252.

Eccles, J. S. & Wigfield, A. (2002). Motivational beliefs, value,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109-132.

Flett, G. L., & Hewitt, P. L. (2002). Perfectionism and maladjustment: An overview of theoretical, definitional, and treatment issues. In Flett, Gordon L. & Hewitt, Paul L.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5-31).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Flett, G. L., Hewitt, P. L., & De Rosa, T. (1996). Dimension of perfectionism,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0*(2), 143-150.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Solnik, M., & Van Brusshot, M. (1996). Perfectionism,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14*(4), 245-274.

Flett, G. L., Hewitt, P. L., Garshowitz, M., & Martin, T. R. (1997). Personality, negative social interac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9*, 28-37.

Frost, R. O., & Marten, P. A. (1990).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559-572.

Hadjistavropoulos, H., Dash, H., Hadjistavropoulos, T., & Sullivan, T. L. (2006). Recurrent pain among university students: contributions of self-efficacy and perfectionism to the pain experi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6), 1081-1091.

Hart, B. A., Gilner, F. H., Handal, P. J., & Gfeller, J. D.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self-effica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1), 109-113.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Hofstede, G., Hofstede, G. J., & Minkov, M. (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Intercultural cooperation and its importance for survival* (3rd ed.). New York: McGraw-Hill.

Karabenick, S. A., & Knapp, J. R. (1991). Relationship of academic help seeking to the use of learning strategies and other instrumental achievement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2), 221-230.

LoCicero, K.A., & Ashby, J. S. (2000).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self-reporte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5*(2), 47-56.

Mann, M. P. (2004). The adverse influence of narcissistic injury and perfectionism on college students' institutional attach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1797-1806

Mills, J., & Blankstein, K. R. (2000). Perfectionism, intrinsic vs. extrinsic motivation, and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6), 1191-1204.

Miquelon, P., Vallerand, R. J., Grouzet, F., & Cardinal, G. (2009). Perfectionism, Academic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n Integrative Model.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7), 913-924.

Mushquash, A. R., & Sherry, S. B. (2012). Understanding th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t's cycle of self-defeat: A 7-day, 14-occasion daily diary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 700-709.

P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40.

Pintrich, P. R., Smith, D. A. F., Garcia, T., & Mckeachine, W. J. (1993). Reli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3*(3), 801-816.

Rice, K. G., & Mirzadeh, S. A. (2000). Perfectionism, attach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2), 238-250.

Rice, K. G., Vergara, D. T., & Aldea, M. A. (2006). Cognitive-affective mediators of perfectionism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3), 463-473.

Sironic, A., & Reeve, R. A. (2012). More evidence for four perfectionism subgroup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4), 437-442.

Slaney, R. B., Rice, K. G., Mobley, M., Trippi, J., & Ashby, J. S. (2001). The revised almost perfec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4*(3), 130.

Stajkovic, A. D. & Luthans, F. (1998).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4*(2), 240-261.

Stoeber, J., & Otto, K. (2006). Positive conceptions of perfectionism: Approaches, evidence, challen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4), 295-319.

Stoeber, J., Hutchfield, J., & Wood, K. V. (2008).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aspiration level: Differential effects of perfectionistic striving and self-criticism after success and fail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4), 323-327.

Trawick, L., & Corno, L. (1995). Expanding the volitional resources of urban community college students. In P. R. Pintrich (Ed.), *Understanding self-regulated learning* (pp. 57-70). San Francisco, CA: Jossey-Bass.

Verner-Filion, J., & Gaudreau, P. (2009). From perfectionism to academic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achievement go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 181-186.

Zimmerman, B. J. (1990). Self-regulating academic learning and achievement: The emergence of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 173-201.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1986).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3*(4), 614-628.

* 논문접수 2020년 5월 4일 / 1차 심사 2020년 6월 4일 / 게재승인 2020년 6월 20일

* 박효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ty of Georgia 교육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강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iampark@ewha.ac.kr

* 주현정: 대구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초등교육방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ty of Georgia 교육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혁신센터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hyunjung@inje.ac.kr

Abstract

The Differences in Self-Efficacy, Learning Strategie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Cluster of Perfectionism

Park, Hyojin*
Ju, Hyunjung**

This study examined natural groupings of college students in terms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differences in self-efficacy, learning strategie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sub-groups. Based on the data of 315 college students, cluster analysis using the sub-scales of perfectionism—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resulted in three clusters. The first cluster was a 'self- and other-fulfilling perfectionism group' characterized by above average scores on both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The second cluster was a 'self-fulfilling perfectionism group' with an above average score o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below average score o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The third cluster was a 'non-perfectionistic group' with below average scores on both perfectionism. As results of analyses, Cluster 2 (self-fulfilling perfectionism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self-efficacy and sub-scales of learning strategies—cognitive (rehearsal and organization), resource management (time and study management and effort regulation), and metacognitive strategies—than Cluster 3 (non-perfectionistic group). Regarding adaptation to college life, Cluster 1 (self- and other-fulfilling perfectionism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individual and emotional, academic, and social adaptation than others. This study will help to understand challenges of learning and college life among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ir types of perfectionism and provide appropriate strategies or services for students depending on their types.

Key word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Cluster analysis, Self-efficacy, Learning strategies, Adaptation to college life

* First author,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Inje University